

불·교·사·각·원
 부처님 조상, 천불조상, 목탱화, 계곡물사, 천불암사,
 내무정암불사, 불교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 커다란 철제너로기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세속의 피로를 씻어버리면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긴다.



◇ 겨울 지리산의 흑한도 차 한잔이 있어 반갑다. 생계시 생계다원은 '숙진을 씻고 그윽한 향기를 마음에 담고 가라'며 동산객의 마음을 끌고 있다.

산사의 찾집

“한잔 차로 IMF 시름 놓아요”

한 겨울 눈속에 묻혀 버린 고적한 산사. 산사의 설경을 밟아 마시는 차 한잔의 여유는 IMF 한 파는 물론 세속의 온갖 번뇌를 말끔히 씻어주기에 충분하다. 산사의 맑은 샘물로 끓인 차 한 잔의 여유야말로 '차나 한잔 들게나'라던 조주스님의 은근한 화두까지 풀어내는 귀한 시간 일 것이다.

겨울 산사의 찾집을 찾는 다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 등산 길에 만난 산사의 찾집이 인생을 반추하고 자신을 돌아 보는 사색의 공간으로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림이 없는 경제난국의 현실에서 삶의 피로를 한숨에 안은 사람들. 이른바 명예퇴직자, 감원대상으로 풀지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도 산사의 찾집은 따뜻한 위안의 자리가 되고 있다. 차 한잔은 단지 한잔의 차가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풀고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정신무장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 부인과 함께 지리산을 찾은 김성진씨(42·광주시 화정동)는 생계사 일주문 안의 찾집에 들었다. 그는 한달전에 명예퇴직을 했다. 누구보다 추운 겨울일 수 밖에 없는 그에게 부인이 산에나 다녀 오지고 해 나산 길이었다. '술바람 향기로운 산사에 오셨으면 포근한 이 다원에 청량한 한 잔의 차로 피로한 숙진을 씻어 버리고 그윽한 향기를 마음에 담고 가시오.' 찾집 앞에 풍나무를 다듬어 세운 안내관에 새겨진 글귀에 마음이 끌렸다. 그는 찾집에서 부인이 다려주는 세작을 마시며 그간 시려왔던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맑은 기분이었다. 그동안 차에 관심이 없었던 터라 별 감흥없이 추위나 녹일 생각으로 들어 온 찾집이었는데 그윽한 실내 분위기와 마음을 휘감는 차맛 그리고 조용히 차를 건네는 부인의 다정한 모습에서 그는 맑은 것을 한꺼번에 생각했다.

"차 맛이 어떻습니까?" 조심스레 묻는 기자에게 그는 누구냐는 반문도 없이 가슴에 담은 말을 털어 놓았다.

"참 담담한 겨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예퇴직이란 현실이 나를 엄청나게 무기력하게 만들었거든요. 새해를 맞는 기분이 비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짐사탕과 겨울산을 오르며 새로운 다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차를 마시다 보니 마음이 맑아지는군요. 이제껏 열심히 살아 왔던 것처럼 나 스스로 새해를 열어가야 한다는 다

IMF시대 산오른 茶客들 샘물로 끓인 녹차 마시며 서가에 꽂힌 불서 읽고 산사풍경 감상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색

집을 했습니다. 이 찾집의 그윽한 향기를 마음 가득 담아가겠습니다.

찾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물어 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속진의 피로가 다 씻어진 때문일 것이다.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체취가 어린 해남 대문사에는 동다실이 있다. 등산로 끝에 위치한 동다실에는 휴일이면 의자가 모자랄 만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다실을 관리하는 월우스님(대문사 재무)은 "피로에 지친 사람들도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대문사의 겨울 풍경을 감상하는 동안 마음의 짐을 훌훌 벗어 버리게 된다"며 겨울 산사의 찾집은 말이 필요없는 포교당임을 강조했다.

산사의 찾집에서는 대부분 심산유곡에서 채취한 차일을 맑은 물로 끓여낸 녹차를 비롯 약초차, 오미자차, 솔잎차, 대추차, 매실차, 쌍화차 등 각종 진통차를 맛볼 수 있다. 찾집에 따라 한과나 죽을 준비한 곳도 있다. 찾집이라고 해서 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을 마련해 독서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겨울 산사에서 홀로 차를 마시는 시간은 사색의 즐거움을 줄 것이고 다정한 벗과 더불어 차향과 맛과 빛깔을 나누는 것은 삶의 기쁨과 활력을 배가시켜 줄 것이다.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다지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유난히 추운 이 겨울, 산사를 찾아 차 한 잔을 마셔 보라. 꽃피고 새우는 봄소식이 들려 올 것이다.

글=김종근 사진=고영배 기자



◇ 사남송회 장소로도 활용되는 남양주 봉영사 불연다원.



◇ 김진 백련사 선다원의 내부 전경.

취재수첩
 생계다원·동다실·심산유곡·사찰공예·찾집 10여곳

인터뷰 봉영사 불연다원 이보덕화 원장 “마음공부 장소되도록 노력” 사찰예절·교리상담도 정성껏

"한 잔의 차는 산란한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비탄에 빠진 슬픔도 위로해 주는 약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봉영사 불연다원 원장 이보덕 화보살이 말하는 차 예찬이다. 이원장은 요즘들어 차 한잔이 간질한 때라며 안타까워했다.

"다원을 찾는 사람 가운데 직장을 잃고 험한 마음을 달래려는 분들이 많아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께 차를 낼 때는 남다른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봉영사 불연다원은 차의 맛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주지 월안스님이 직접 제작한 특직한 난로에서 타오르는 장작불 가에 앉아 이원장이 다려내는 차를 마시며 잠시나마 세상살이 걱정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장은 봉영사 불연다원을 찾는 다객들에게 찾집포교사로 통한다. '사찰의 찾집은 영리

를 추구하기에 앞서 포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론 때문.

"사찰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불교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불교적 교리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고 사찰을 참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가 불연다원 소임을 맡으면서 더욱더 포교방법이다.

불연다원은 차만 마시는 공간에서 멈추지 않는다. 법사가 상주 상담도 해주고 사찰 및 일반 예절, 환경관련 비디오상영, 시낭송회, 건강강좌 등의 장소로도 사용된다. 또 다객들에게 독서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2천여권의 서적들을 비치해 놓고 있다.

이보덕화보살은 "경제대란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 말씀을 담은 액자를 맞춰 더 걸 계획"이라며 넉넉한 웃음을 보였다.

◇ 사찰이 운영하는 찾집

| 사찰 | 찾집 | 전화 |
|-----|------|----------------|
| 적지사 | 산중다원 | (0547)436-3087 |
| 향계사 | 생계다원 | (0595)84-1373 |
| 선암사 | 선각다원 | (0661)354-6323 |
| 대문사 | 동다실 | (0634)335-6890 |
| 백암사 | 선다원 | (0685)92-5741 |
| 봉도사 | 선다원 | (0523)84-0207 |
| 백련사 | 선다원 | (0638)32-0837 |
| 봉영사 | 불연다원 | (0346)572-0330 |
| 조계사 | 산중다원 | (02)736-1678 |
| 법연사 | 연다원 | (02)733-5500 |
| 봉은사 | 봉은찾집 | (02)3445-4573 |
| 불광사 | 다경실 | (02)416-6156 |

